



초령목

자생식물에서 간경화 치료물질 개발

쌍떡잎 식물인 황금(黃芩)과 단삼에서 간경화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 개발됐다.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자생식물이용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국내 120여 종의 자생식물들을 조사중인 원광대학교 손동환 교수팀은 지난 4월 1일, "황금과 단삼이 간경화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점을 발견, 이들 식물에서 해당 물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동물 실험을 통해 황금과 단삼이 간경화를 유발하는 간성상세포의 증식과 변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단삼 성분중 탄시논(tanshinone) I'은 활성화된 간성상세포를 고사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직 독성시험이 남아 있지만 손 교수팀은 조만간 국내에 물질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식물 분류학지 남북 공동 편찬

남북한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모든 식물을 공동으로 조사, 종합하여 식물 분류학

지를 발간한다.

자생식물이용개발사업단 정혁 단장은 지난 4월 1일, "남북 식물분류 학자 100명이 참가, 2007년까지 한반도 종합 식물분류학지를 발간키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지난 2월 26일 북한과학원 홍종휘 국장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단이 북한측에 100만 달러 상당의 기자재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판으로 제작, 발간될 식물분류학지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4천여종의 식물이 망라될 예정이다.

학교 집단 식중독 원인은 바이러스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해 학생들의 집단 결석상태를 빚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김명희 원장은 지난 3월 30일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학생들의 가검물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며 "구체적인 바이러스의 종류는 더 검사를 해야겠지만 신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살모넬라균이나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세균과는 달리, 식중독 바이러스는 감염 1~5일경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지만 체내에 면역이 생겨 대개의 경우 저절로 낫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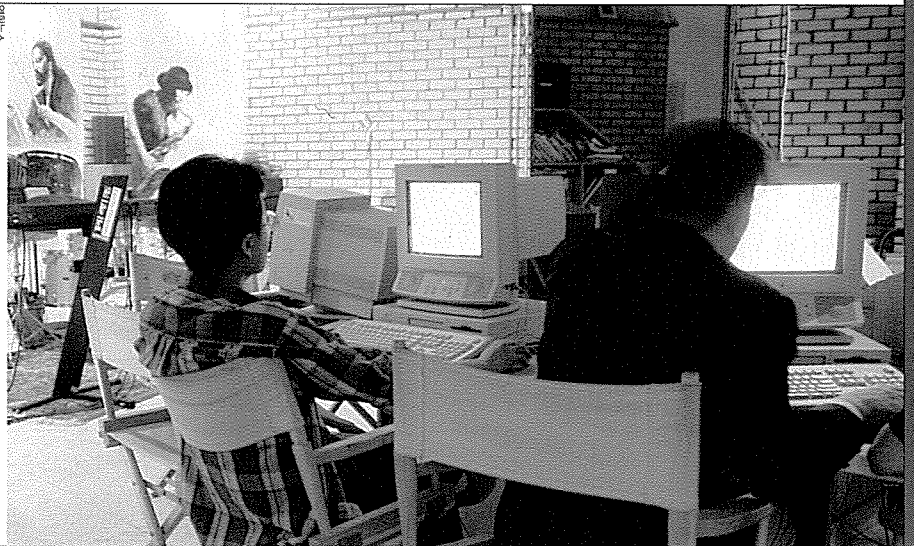
위장질환 진단용 마이크로 소자 개발

위암·위궤양 등 악성 위장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한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경북대학교 이덕동 교수팀(전자전기공학부)은 지난 3월 30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뿜어내는 암모니아 가스를 탐지함으로써 이 균에 대한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고감도 냄새 탐지용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냄새 탐지용 소자는 1.0mm×3.0mm×0.2mm 크기로, 위 내시경 코드에 부착돼 사람의 위장에 삽입, 1분내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뿜어내는 암모니아 가스를 식별해 낼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가스의 밀도를 분석하여 이 균의 서식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현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그동안 20여명을 상대로 테스트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멸종 추정 '초령목' 제주서 발견

산림청 임업연구원 제주임업시험장은 지난 3월말, "국내 자생지인 흑산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초령목' 이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초령목' 은 높이 20m, 둘레 170cm로 흑산도 자생지의 것보다 크고 생장과 개화 상태는 좋으나 태풍 피해로 넘어져 있는 상태여서 고사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목련과에 속하는 상록수인 '초령목' 은 그 모양과 꽃이 아름다운 큰키나무로서, 주로 중국 남부를 포함한 아시아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흑산도와 제주도에 드물게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기념물 369호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94년 고사, 2001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 흑산도 '초령목' 은, 제주대학 식물학과 김문홍 교수가 지난 76년 남제주군 지역에서 그루를 발견해 보고한 바 있으나 자생지가 훼손돼 국내에서는 완전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 수목시험소는 지난 89년 남제주군 남원읍 신예천에서 발견된 60~70년생 '초령목' 가지 삼목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초령목 증식사업' 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뜬다

세계 500대 인터넷 사이트에 랭크된 한국 사이트의 주류가 바뀌고 있다.

미국 알렉사닷컴(www.alexa.com)이 방문자 및 페이지뷰 기준으로 조사한 500대 사이트에 포함된 한국사이트 134개중, 지난해말 18개로 가장 많았던 콘텐츠 사이트(교육, 부동산, 구인·구직 등)는 11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커뮤니티 사이트는 6개에서 9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보 습득 등 '소극적' 인 인터넷 이용 패턴이, 동호회 활동이나 게임·오락 등 보다 '참여적' 인 패턴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고, 영재반 이수자에 입학 혜택

2004학년도 서울 지역 고교 입학전형에서 과학고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영재학급 이수자를 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외로 선발한다. 영재학급 이수자들은 일반전형에 응시할 때 가산점도 받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04학년도 고입 선발 전형 계획을 확정했는데, 영재학급 이수자가 과학고

입학때 혜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한성과학고·서울과학고 등 두 곳에서 영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수학·과학·정보 분야 학생들과 서울대·연세대 부설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 참가자다. 일반전형 응시 때 부여되는 가산점은 최고 0.5점(1년 이수때 0.25점)이다.

성인병 '생활습관병' 으로 바꾼다

당뇨병·심장질환 등을 통칭하던 '성인병' 이라는 명칭이 '생활습관병' 으로 바뀐다.

대한내과학회는 "이른바 성인병은 대부분 흡연·과식·과음·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인병' 이라는 명칭을 '생활습관병' 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생활습관병 위원회' 를 발족하고, 학술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해당 질환 범위를 규정할 예정이며, 일반인들에게 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정리 | 괴흥 미디어팀